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구체화

무주군, 정부에 공식 제안
태권도 올림픽 종목유지
위한 출구전략 제시

무주군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U-프로젝트는 말굽자석의 모양과 원리를 적용한 사업 개념으로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 모으듯 태권도를 매개로 세계인을 끌어 모으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U의 의미는 Universe(전 세계, 전 인류)로 자석의 'N극'은 North Korea(북한), 'S극'는 South Korea(남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하나 되고(ONE WORLD) 남과 북이 하나(ONE KOREA)돼 남·북한 평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책 비전으로 태권도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내세웠으며 태권도의 세계화·산업화 및 올림픽 영구 종목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U-프로젝트의 핵심 사업과 출구 전략은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인 (가칭)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총 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하는 것으로, 태



무주군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2일 진행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관련 서명운동(사진 왼쪽)과 지난 2월 4일 세계태권도연맹·무주군 업무협약체결식(사진 오른쪽).

권도가 국기(國旗)인 만큼 설립주체(Main)는 국립으로 하되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부지 제공과 사업비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사업 부지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권도원 민자 지구를 활용하고 학교 형태는 1년 과정의 국방대학교 처럼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이 적정하다는 안을 포함시켰다.

입학정원은 올림픽(태권도 종목) 출전국(70개국) 각 2명씩 140명, 그밖의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140개국) 각 1명씩 140명, 국내 20명 등 총 300명이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무주군청 행정복지국 문현중 국장은 "그간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서명운동과 태권도계와

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던 정치직업들을 토대로 문체부에 공식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며 "고속도로 5km 건설비용이면 전 세계로 수백만km를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 고속도로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조성이 가능한 만큼 U-프로젝트의 투자가 치를 이해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면 태권도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전 세계 태권도 인구(약 5,000여만 명)의 1%인 150여만 명의 대한민국 방문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여론 형성 기반을 다지고 내실 있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서 사관학교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책자를 제작해 관내 기관들과 사회단체, 마을 구심체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 전국 대학교 태권도 학과 등지에 배포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북체육회, 유아체육활동 지도
코로나19 예방 방역키트도 지원

전북체육회가 유아체육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는 유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활체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도내 16개소유치원 15개소·어린이집 1개소에서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이 운영되며, 역량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지도하게 된다.

수업은 오는 12월까지 평균 주2회 이뤄지며 탕탕볼과 송발공, 균형잡기 등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유아체육 용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유아체육활동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유아의 건강 및 신체 발달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무료 숙박 교육

국립등산학교 '인센티브 교육' 시행

속초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무료 숙박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중국 교장은 "백신 접종을 두려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프로그램' 하나로 이 체험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팀당 4인 단체로 매 회당 5팀(20명)까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4인 1팀 대표로 한 사람이 예약하면 되며, 예약 후 일행 모두의 접종완료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교육은 첫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까지 입교, 방 배정 후 2시간 동안 스포츠클라이밍 교육을 진행한다.

숙소는 4인 1팀당 복층 구조의 8인실 1칸씩 배정한다. 교육이후 다음날 아침 퇴실 때까지 음주 금



지 등, 운영방식에 따라야 한다.

교육일정은 오는 7월 2~3일(금~토)과 7월 7~8일(목~금) 2회 시범 운영 후 교육생 호응도, 코로나19 상황 백신접종 현황 등을 보아 9월 말까지 월 2회씩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tnschool.kr) 또는 전화(033-632-6653)로 상담할 수 있다.

국립등산학교는 속초시 숲박물관의 송림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숙소와 비슷한 복층 구조의 8인실 8개, 4인실 2개를 비롯해 교육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유호성 기자

예천 단오장사 대회 출사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이승욱 등 총 10명 출전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10월 20일 예천 단오장사씨름대회 출전식을 가졌고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예천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민속씨름 4대 대회(설날, 단오, 추석, 천하장사)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대회는 KBS ITV와 KBS N Sports 유튜브 채널 '할바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에는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를 중심으로 한라급 장사 출신 이승욱 선수 등 총 10명의 선수가 정읍의 명예를 걸고 출전



한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씨름단 주장 김성하 선수(태백급)는 2013년도에 열린 단오장사 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를 차지한 이력이 있는 만큼 큰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 김성하 선수는 결승전에서 0대2로 끌려다가 3대2로 극적으로 역전 우승했다. 해당 경기는 유튜브 조회수가 139만회가 넘는 등 지금까지도 명경기로 회자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뛰어난 성적으로 정읍의 오향(人香·馨香·酒香·味香·花香)을 알리고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풍미인씨름단이 우수한 성적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영 감독은 "시민들의 응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서 정읍시의 브랜드를 드높이고 전국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에서 여름나기

초록이 머무는 곳

다양한 힐링체험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정읍사공원 아양사랑숲

여름휴가 명소 국민여가캠핑장

내장호수에서 슬슬바람 단풍생태공원

정읍시 JEONGEUP-SI